

〈특집〉

『서울대학교 法學』 반세기 역사

韓基貞*

1. 창간

해방 이후 『법정』(법정사, 1946년), 『법조』(법조협회, 1949년), 『Fides』(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54년) 등 법학학술지가 잇달아 발간되고, 1956년 이후에는 일부 법과대학들이 소속대학의 교수들의 논문을 중심으로 엮은 법학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었다.¹⁾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이 1959년 6월에 창간되었다. 당시 편집위원이었던 김증한, 서돈각, 김진 교수 등은 『서울대학교 법학』의 창간 취지 및 포부를 편집후기에서 밝히고 있다.²⁾ 대학의 사명이 연구에 있고 외국의 모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부교수, 법학연구소 간행부장.

1) 『서울대학교 법학』의 창간 이전에 16종류의 법학학술지가 발간되고 있었음.

2) “대학의 사명은 연구에 있다. 대학교수는 그 연구의 성과를 한편으로는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다른 편으로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직접 입법·사법·행정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외국에 있어서는 모든 법과대학이 예외없이 정기적으로 법학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그렇거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해방 후의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대학들이 발족하여 우선 대학으로서의 외면적 질서를 세우는 데에 바빴고, 그 때문에 내면적으로 연구의 충실을 기하는 데에 충분한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 학술지의 정기적 발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대부분임은 심히 유감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도 그 중의 하나이었으며 지금에 와서야 비로서 그러한 성질의 학술지의 창간호를 내게된 것을 한편 부끄러이 여기며 타편 늦게나마 내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동시에 앞으로 꾸준한 발전이 있기를 기약하고 싶다. 당분간은 연 2회 춘추로 발간하고 앞으로 경비지관(經費支辦)의 길이 확립함에 따라서 횟수를 늘리려고 한다. 앞으로는 본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임교수와 학생 및 법학을 전공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학생을 당연위원으로 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생 및 강사를 임의회원으로 하는 『서울대학교법학회』(가칭)를 조직하려고 구상하고 있다. 본지의 내용은 논설·자료·판례연구·서평 등으로 하며 필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관계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는 판례연구 특히 대법원판례의 연구에 더욱 치중할 예정이다. 본호의 편집위원은 다음의 삼인이었으며, 이 밖에 김남진·이시운 양 법학사가 많이 도와 주었다.”

법과대학이 정기적으로 법학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의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외면적 질서를 세우는데 급급하여 법학학술지의 정기적 발간을 하지 못하는데 유감을 표명하며, 늦게나마 법학학술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소회를 나타내면서, 향후 꾸준한 발전을 기약하는 내용이 편집후기에 담겨져 있었다. 단순한 편집후기라기보다 사실상 창간사의 역할을 했던 셈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의 창간호(제1권 제1호)는 논설 4편, 자료 1편, 판례연구 4편, 서평 2편을 싣고 총 248면으로 구성되었다. 필진으로는, 논설에 한태연, 황산덕, 서돈각, 곽윤직 등, 자료에 김진, 판례연구에 김중환, 김기두, 배재식(이상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민운식(당시 변호사) 등, 서평에 손주찬(당시 서울대 법대 강사), 남홍우(당시 고려대 법대 교수) 등 당대의 걸출한 법학자들이 두루 참여하였다. 외국 문헌의 풍부한 인용도 눈에 띄었다. 내용·외형 모두에서 충실한 출발이었다.

2. 창간 이후

(1) 지령

『서울대학교 법학』은 창간이후 2009년 3월에 제50권 제1호(통권 제150호)가 발간되어 간행 50주년(지령기준)에 이르게 되었다. 햇수로만 보면 2008년에 제50권이 발간되었어야 했겠지만, 1969년 6월에 제11권 제1호가 1970년 3월에 제11권 제2호가 발간되고, 제12권 제1호가 1970년이 아닌 1971년 6월에 발간됨으로써, 1년 1권 발간 원칙에 대한 예외가 1969년과 1970년 사이에 나타났고, 그 결과 『서울대학교 법학』 간행 50주년(지령기준)의 영예는 2009년의 몫으로 되었다.

(2) 권수·호수

『서울대학교 법학』은 창간 이후 제21권(1980년)까지 매권마다 2회 발간되었고[다만 제7권(1965년)과 제8권(1966년)은 각각 제1호만 발간], 제22권(1981년) 이후부터 매권마다 4회(계간) 발간되었다[다만 제33권(1992년)은 제1호·제2호만 발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원 수가 증가하고 연구여건도 점차 개선되면서 투고원고 수가 증가한 결과였다.

특별호가 4회 발간된 적이 있는데, 권수 면에서는 일반호로부터 독립된 번호가 부여되었으나(특별호 제1권·제2권·제3권·제4권), 통권 면에서는 일반호와 연계된 번호가 부여되었다(통권 제23호·제25호·제26호·제41호).³⁾

(3) 통권번호 및 책수

현재 통권 기준으로 제150호(2009년 3월 발간 제50권 제1호)에 이르렀으나, 실제로 발행된 책의 수는 136책이다. 여러 차례 합본호가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발간된 합본호는 모두 두 개의 호를 합한 것인데, 통권상 두 개의 호로 표시한 경우가 14회이고⁴⁾ 한 개의 호로 표시한 경우가 5회였다.⁵⁾

(4) 발간주체

『서울대학교 법학』의 발간주체에는 변화가 있었다. 제1권 제1호(1959년)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1권 제2호(1959년)~제5권(1963년)은 서울대학교법학회, 제6권(1964년)~제8권 제1호(1966)는 서울대학교 한국법학연구소, 제8권 제2호(1966)~제11권(1969·1970년)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2권(1971년)~제16권(1975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연구소, 제17권(1976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주체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그 전신인 한국법학연구소 포함)가 제6권(1964년) 이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의 발간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⁶⁾

3) 특별호 제1권(통권 제23호, 1971년 12월, 국제법학원 개최 해외파견 판·검사 제1진 귀국보고 논문집), 특별호 제2권(통권 제25호, 1972년 5월, 트러스트펀드에 의한 연구 논문집), 특별호 제3권(통권 제26호, 1972년 6월, 아산재단기금에 의한 연구논문집), 특별호 제4권(통권 제41호, 1979년 12월, 국제법학원 개최 해외파견 판·검사 제2진 귀국보고 논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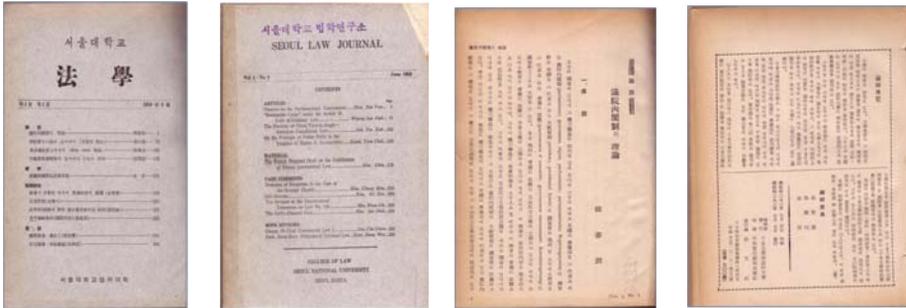
4) 제4권 제1호·제2호(1962년 12월)/제5권 제1호·제2호(1963년 12월)/제24권 제2호·제3호(1983년 9월)/제25권 제2호·제3호(1984년 10월)/제26권 제2호·제3호(1985년 10월)/제27권 제2호·제3호(1986년 12월)/제28권 제3호·제4호(1987년 12월)/제29권 제3호·제4호(1988년 12월)/제30권 제1호·제2호(1989년 5월)/제30권 제3호·제4호(1989년 12월)/제31권 제1호·제2호(1990년 8월)/제31권 제3호·제4호(1990년 12월)/제32권 제1호·제2호(1991년 8월)/제32권 제3호·제4호(1991년 12월).

5) 제34권 제3호·제4호(1993년 12월)/제35권 제3호·제4호(1994년 12월)/제36권 제3호·제4호(1995년 12월)/제37권 제3호·제4호(1996년 12월)/제38권 제3호·제4호(1997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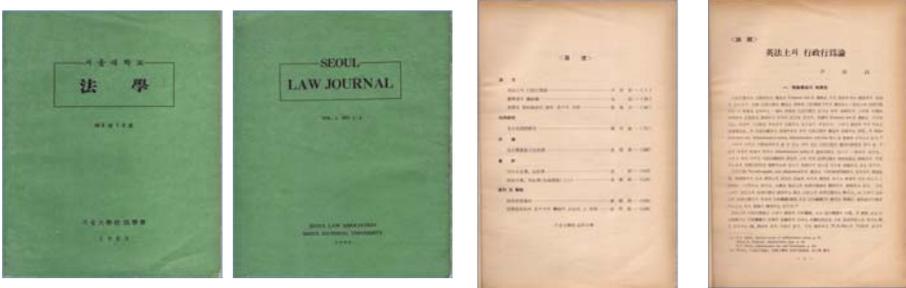
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961년 4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비교

6 『서울대학교 法學』 반세기 (200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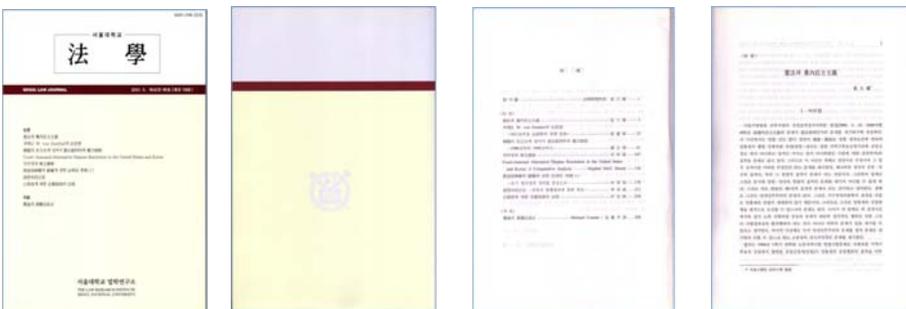
(5) 외관, 판형, 쓰기 형태



제1권 제1호(1959년)



제4권 제1호(1962년)



제42권 제1호(2001년)

법연구소』로 발족되었고, 1964년 3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한국법학연구소』로 개칭되었으며, 1966년 9월에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 승격되었고, 1970년 4월 서울대학교설치령에 의거하여 국내대학 유일의 법정국립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 확대·개편되었음.

제1권(1959년)~제3권(1961년)은 판형이 A5(국판, 148*210mm)와 유사한 140*196mm이었고, 오른쪽부터 세로쓰는 방식이었다. 제4권(1962년) 이후에는 판형이 B5(46배판, 182*257mm)와 유사한 182*254mm으로 변경되었고, 왼쪽부터 가로쓰는 방식이 채용되었으며, 색상 등 표지디자인도 변경되었다. 제42권(2001년) 이후에는 판형은 유지하되 색상 등 표지디자인이 변경되었다.

(6)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서울대학교 법학』은 2007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우수한 논문이 투고되고 엄정한 심사와 편집이 수행된 결과이다.

3. 통계적 조망

(1) 기간별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59~1968	1969~1978	1979~1988	1989~1998	1999~2009

여기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의 반세기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그 변화 추이를 통계적으로 조망한다. 이러한 시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해 온 『서울대학교 법학』의 학문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접근해 보는 데 의의가 있다.

1959년에 창간된 『서울대학교 법학』의 역사를 햇수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분류해 보면, 대략 제1기는 1960년대(1959년~1968년), 제2기는 1970년대(1969년~1978년), 제3기는 1980년대(1979년~1988년), 제4기는 1990년대(1989년~1998년), 제5기는 2000년대(1999년~2009년)라고 구분할 수 있다. 제50권 제1호(2009년 3월)는 햇수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구분할 때 제6기로서 2010년대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1개의 호로는 10년 단위 변화 추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5기인 2000년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2) 원고의 수 및 종류

(단위: 편, ()는 %)

	제1기 (1960년대)	제2기 (1970년대)	제3기 (1980년대)	제4기 (1990년대)	제5기 (2000년대)	총계
논 문	85 (48.9)	123 (71.1)	258 (78.7)	235 (78.0)	410 (83.0)	1,111 (75.6)
판례연구	31 (17.8)	18 (10.4)	24 (7.3)	20 (6.7)	17 (3.4)	110 (7.5)
번 역	0 (0)	1 (0.5)	2 (0.6)	17 (5.7)	27 (5.5)	47 (3.2)
자 료	21 (12.0)	12 (6.9)	15 (4.6)	11 (3.7)	12 (2.4)	71 (4.8)
서 평	32 (18.4)	15 (8.7)	15 (4.6)	13 (4.3)	21 (4.3)	96 (6.5)
기 타	5 (2.9)	4 (2.3)	14 (4.3)	4 (1.3)	7 (1.4)	34 (2.3)
	174	173	328	300	494	1,469

원고의 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 원고는 1,469편이다. 1960년대는 174편, 1970년대는 173편, 1980년대는 328편, 1990년대는 300편, 2000년대는 494편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이 계간으로 간행되기 시작한 1980년대(정확하게는 1981년 이후)는 1970년대에 비해서 원고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173편에서 328편으로 89.5%가 증가한 것이다. 1990년대는 원고 수가 1980년대와 유사하였으나, 2000년대는 원고 수가 1990년대의 300편에서 494편으로 64.6%가 증가하였다. 원고가 양적으로 풍성해진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이 2007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가 됨에 따라 외부원고의 투고 및 게재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2010년대에 원고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원고의 종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 원고 1,469편 중 논문이 1,111편(75.6%), 판례연구가 110편(7.5%), 서평이 96편(6.5%), 자료가 71편(4.8%), 번역이 47편(3.2%), 기타⁷⁾가 34편(2.3%)이다. 논문 및 판례연구가 높은 비중(83.1%)을 차지하면서도 서평, 자료, 번역 등이 적절히 안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간 별로

7) 기타원고는 평론, 노트, 연구노트, 산고, 추모논문, 특별기고, 특별강연문, 학술대담, 보고, 촌평 등이다.

보면, 기간 경과에 따라 주로 논문의 원고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번역의 경우 증가율은 높으나 양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3) 원고의 분야

(단위: 편)

분야		원고 편수		분야	원고 편수
기초법	법철학 법제사 법사회학	233	100	민 법	169
			96	민사소송법	49
			37	상 법	128
법학교육과 법조		69		노동법	56
헌법(통일법 포함)		158		경제법	27
행정법		99		지적재산권법	31
국제법		82		세 법	19
형 법 (형사소송법 포함)		118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⁸⁾ 기초법 189편, 법학교육과 법조 63편, 헌법(통일법 포함) 158편, 행정법 102편, 국제법 82편, 형법(형사소송법 포함) 118편, 민법 169편, 민사소송법 49편, 상법 128편, 노동법 56편, 경제법 27편, 지적재산권법 31편, 세법 19편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원고가 법학의 전 분야에 골고루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법, 그리고 법학교육 및 법조 분야의 논문이 충실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8) 다만 위 표의 분야별 숫자는 분야별 분포에 관한 전체적 경향을 조망한다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여기서 밝혀 둔다. 『서울대학교 법학』 50주년을 맞이하여 분야별 분류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분류대상인 논문 및 판례연구가 총 1,221편에 이르고 중복 분야가 존재했으며 분야의 구분 자체가 유동적인 경우가 적지 않아 위 표의 수치는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완전한 분류를 시도했다기보다는 각 주제별 발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분류를 하여 필자들에게 분류결과를 제공했고 필자들이 제공된 분류결과를 기초로 확인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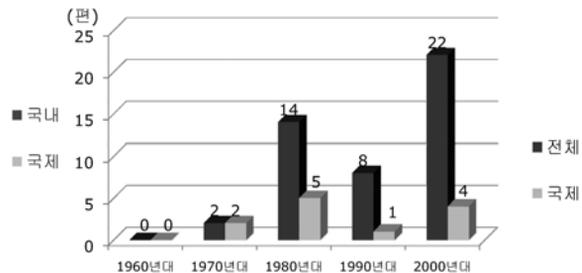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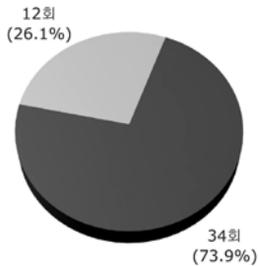
(4) 원고의 분량

(단위: 200자 원고지, ()는 평균매수)

	제1기 (1960년대)	제2기 (1970년대)	제3기 (1980년대)	제4기 (1990년대)	제5기 (2000년대)	총계
논 문	13,290 (156)	21,560 (175)	37,366 (145)	37,153 (158)	84,336 (206)	193,705 (174)
판례연구	2,076 (67)	2,303 (128)	2,919 (122)	2,250 (113)	3,834 (226)	13,382 (122)
번 역	0 (0)	126 (126)	161 (81)	2,420 (142)	4,218 (156)	6,925 (147)
자 료	2,677 (127)	2,128 (177)	2,492 (166)	2,021 (184)	1,698 (142)	11,016 (155)
서 평	1,152 (36)	840 (56)	847 (56)	573 (44)	1,008 (48)	4,420 (46)
기 타	630 (126)	427 (106)	1,631 (117)	651 (163)	660 (94)	3,999 (118)
	19,825 (114)	27,384 (158)	45,416 (138)	45,068 (150)	95,754 (194)	233,447 (159)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총 233,447매이고, 평균은 159매이다. 논문은 평균이 원고지 174매인데, 2000년대는 206매로 증가하였다. 판례연구의 경우 평균이 원고지 122매이나, 2000년대에는 226매로 증가하였고, 이것은 논문의 평균 원고지 매수보다 많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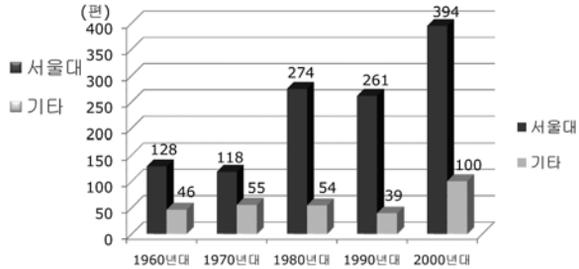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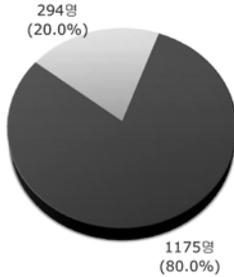
(5) 특집호



특집호는 46회 마련되었다. 국내학술대회 21회, 국제학술대회 12회, 논문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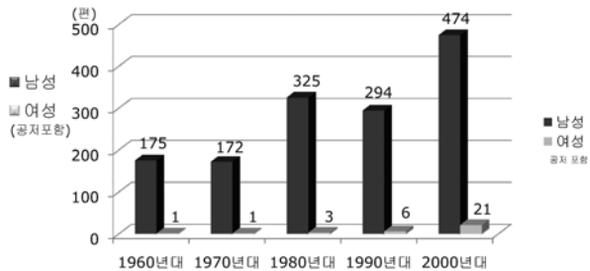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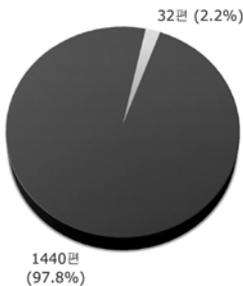
8회, 정년기념 3회, 서평특집 1회, 공동연구 1회였다. 국제학술대회의 특집호가 12회 마련되었는바 『서울대학교 법학』의 국제적 면모가 잘 드러난다.

(6) 저자의 소속대학



저자가 서울대학교 소속인 경우가 1,175편(80.0%), 서울대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가 294편(20.0%)이었다. 창간 이후부터 서울대학교 소속이 아닌 저자의 원고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는 서울대학교 소속이 아닌 저자의 원고 수가 급증하였다. 제1기~제4기의 평균이 48.5편이지만, 제5기인 2000년대에는 100편으로 증가된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의 개방성이 제고된 것이다.

(7) 저자의 성별



저자가 남성인 경우는 1,440편(97.8%)이고, 여성인 경우는 32편(2.2%)이다.

2000년대 이후 저자가 여성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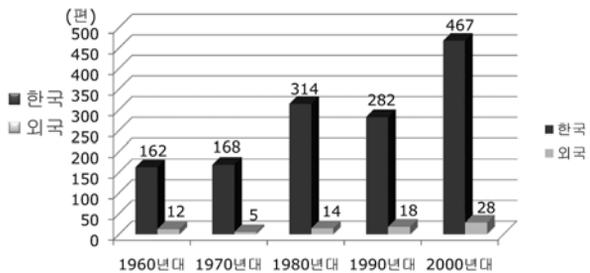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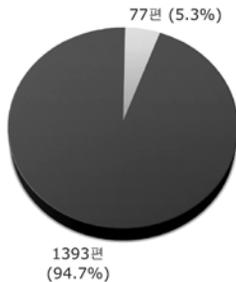
(8) 외국어 원고의 수 및 언어

(단위: 편)

	제1기 (1960년대)	제2기 (1970년대)	제3기 (1980년대)	제4기 (1990년대)	제5기 (2000년대)	총계
영 어	15	17	32	12	13	89
독일어	1	0	4	3	16	24
중국어	0	0	0	2	1	3
일본어	0	0	0	0	2	2
프랑스어	0	0	0	0	1	1
총 계	16	17	36	17	33	119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는 총 119편이었다. 이 중에서 영어 89편, 독일어 24편, 중국어 3편, 일본어 2편, 프랑스어 1편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의 국제성이 잘 드러난다.

(9) 저자의 국적



저자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가 1,392편(94.7%), 외국인 경우가 77편(5.3%)이다. 창간 이후부터 외국인의 원고 수가 일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의 국제적 면모가 보인다.

(10) 외국어 초록의 언어

(단위: 편)

	제1기 (1960년대)	제2기 (1970년대)	제3기 (1980년대)	제4기 (1990년대)	제5기 (2000년대)	총계
영 어	24	36	8	80	272	420
독일어	18	18	5	34	70	145
프랑스어	1	3	1	17	18	40
국 어	0	1	0	5	26	32
중국어	0	0	0	1	0	1
총 계	43	58	14	136	386	637

외국어 초록은 영어가 420편, 독일어가 145편, 프랑스어가 40편, 국어가 32편, 중국어가 1편이다. 국어가 초록인 것은 본문이 외국어인 경우이다.